

# “초저가로 일상에 스며들어” 中 온라인쇼핑, 어느정도길래



### 국내서 中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유행... ‘테무’로 까지 유행 옮겨가 테무, 지난달 MAU 459만명...알리는 작년 10월에 600만명 넘어서

자본력을 등에 업고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공세가 매섭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를 통해 중국 직구에 눈을 뜬 국내 소비자들 테무(Temu)로 쇼핑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아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테무의 월간사용자수(MAU)는 459만10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33만7225명 대비 1261.4% 증가한 수치다.

테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쇼핑앱 내 신규 설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222만1981명이 테무 앱을 새롭게 설치했다.

지난해 7월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2022년 9월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설립됐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핀둬둬’의 자회사다.

비교적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타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이다. 테무는 실시간 빅데이터를 통한 수요 예측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제품 디자인, 예상 판매 수량 및 물류 계획을 최적화해 공급사에 전달한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요 예측 정확도로 불필요한 재고 비용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랫폼보다 더 낮은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실제 현재 테무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미니 청소기는 1만1597원에 불과하고, 메모리폼 욕실 러그도 2747원이면 살 수 있다. 가족으로 제작된 스마트폰 케이스는 4999원, 천연 가죽 벨트가 6907원이다. 모두 10만개 이상 판매된 제품들이다.

여기에 테무는 최조구매 시 무료배송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일정 금액 구매 이상 시 배송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주문에 대해 1회 무료 반품이 가능한 데다, 구입 후 9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 구입한 상품의 가격이 30일 이내에 인하될 경우 테무가 차액을 보상해준다.

지난해 3월 매우 마동석을 기용해 국내 진출을 본격화한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를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저가 상품으로 무장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지난해 10월 MAU 600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국 전문관인 K메뉴를 오픈, LG생활건강·애경·한국P&G 등 생활용품부터 롯데칠성·삼다수 등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신선식품 카테고리도 관리하는 전문가를 채용하며 영역 확대에 나섰다.

현재 K메뉴 입점 국내 브랜드는 20여개사인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한국 판매자에게는 입점·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입점 기업 수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어느새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며 “다만 저품질과 가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 국감까지 불러갔지만...끊임없는 ‘짜퉁’ 논란

### 알리·테무, 가품·품질 지적 끊이지 않아 대규모 투자 계획 밝혔지만 논란 지속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품(짜퉁)·품질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체 검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사이트에서 가품이 판매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사이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내세운 전략은 ‘저렴한 가격’이다. 값싼 재료비와 인건비를 앞세워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격을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우다 보니 품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입한 물품에서

화약약품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의류를 구입했는데 한번 빨래하고 나니 사이즈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등의 경험담이 나오기도 했다.

또 유명 브랜드 제품의 가품이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글로벌 명품은 물론 국내 브랜드 가품까지 유통된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엔 가품 논란과 관련해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레이 장 대표는 “한국 거래 전체량 대비 가품 관련 이익제기는 0.0015%”라며 “셀러 심사, 인공지능 기반 가품 식별, 지적재산 위반 판매자 처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3가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기술, 인력, 재무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해 12월 알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품 근절을 위해 3년간 총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면 별도 서류 없이도 90일 이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제3자와 협력해 ‘미스터리 쇼피’ 등 가품 검열 시스템 도입,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선 여전히 가품이 판매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버젓이 가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중국 업체들은 국내 통관을 제외하면 가품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업체들은 KC 인증 취득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가품을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애플의 ‘에어팟 2세대’ 가품. 애플은 정식 매장이나 공식 인증 판매처가 아니면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사진=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가품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며 “또 여러 인증과 세금을 판매가에 반영하면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체들을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